

작품 내용

제 목	사라진 이름의 자리
내 용	나는 오래전부터 이름이 사라진 물건들을 생각할 때가 있었다. 버스 정류장에 붙었다가 비에 젖어 찢어진 포스터, 오래된 책갈피 사이에 끼어 있던 사진, 누가 처음 붙였는지 알 수 없는 노래의 한 소절. 그것들은 세상에 남아 있었지만, 그것을 처음 만든 사람의 이름은 대개 지워져 있었다. 이상하게도 이름이 지워진 것들은 조금 쓸쓸해 보였다. 버려진 것이 아닌데도 버려진 것처럼 보였다. 어느 날 나는 인터넷에서 한 장의 사진을 보았다. 저녁빛이 낮은 담장 위에 걸려 있고, 창문 안쪽에는 아직 불이 켜지지 않은 방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오래 바라보고 있자 누군가의 숨이 느껴졌다. 그 장면 앞에 서서 빛이 조금 더 기울기를 기다린 사람, 몇 번이나 화면을 들여다 보다가 마침내 셔터를 눌렀을 사람, 찍고 나서도 쉽게 돌아서지 못했을 사람. 나는 그 사진을 저장하려다가 멈추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사진은 손끝 하나면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그것은 내 휴대폰 속으로 들어올 수는 있어도 내 것이 될 수는 없었다. 그 사진에는 내가 갖지 못한 시간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저작권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다르게 들렸다. 그것은 차갑고 딱딱한 법의 말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사라지기 쉬운 이름을 붙들어 주는 일에 가까웠다. 창작자의 손끝에서 떨어져 나온 것을 세상이 함부로 주워 가지 않도록, 그 곁에 작은 등불을 켜 두는 일 같았다. 우리는 너무 빠른 세계에 살고 있다. 좋은 문장은 복사되고, 그림은 저장되고, 음악은 배경이 되고, 사진은 자료가 된다. 그 과정은 너무 쉽고 조용해서, 때로는 아무 잘못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름이 떨어져 나가는 순간, 창작물은 조금씩 고아가 된다. 만든 사람의 밤, 망설임, 실 패, 다시 고쳐 쓴 시간들이 한꺼번에 희미해진다. 창작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노동이다. 글 한 줄 뒤에는 지운 문장들이 있고, 그림 한 장 뒤에는 버린 밑그림들이 있으며, 음악 한 곡 뒤에는 아무도 듣지 못한 반복이 있다. 우리는 완성된 것만 본다. 하지만 완성된 것만 보고 그것을 가볍게 가져갈 때, 우리는 그 뒤에 놓인 생의 일부를 함께 지워 버린다. 저작권을 지킨다는 것은 그래서 단순히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다는 말보다 넓다. 그것은 타인의 시간을 인정하는 일이다. “이것은 누가 만들었는가” 하고 묻는 일이다. “나는 이것을 어디까지 써도 되는가” 하고 멈추는 일이다. 출처를 밝히고, 허락을 구하고, 이용 조건을 확인하는 일은 작아 보이지만, 그 작은 절차 안에는 한 사람을 함부로 지우지 않겠다는 예의가 들어 있다. 나는 이제 어떤 창작물을 만날 때 그것의 앞모습만 보지 않으려 한다. 문장 뒤의 사람, 사진 밖의 사람, 노래가 끝난 뒤에도 남아 있을 사람을 생각하려 한다. 그 사람의 이름을 함께 남기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한 존

중이라고 믿는다.

저작권은 창작물 위에 세우는 높은 담장이 아니다. 오히려 길가의 낮은 표지석에 가깝다. 이곳에 누군가 지나갔다고, 이 아름다움은 아무 데서나 생겨난 것이 아니라고, 이 작은 결과물에도 한 사람의 시간이 묻어 있다고 알려 주는 표지석.

세상에는 너무 쉽게 사라지는 이름들이 많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묻고, 한 번 더 밝히고, 한 번 더 허락을 구한다면 어떤 이름들은 조금 더 오래 남을 수 있다. 그리고 이름이 오래 남는 곳에서 창작은 다시 시작된다.

누군가의 것을 존중하는 일은 결국 나의 것도 존중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다. 내가 쓴 글, 내가 찍은 사진, 내가 그린

작은 선 하나도 언젠가 다른 사람의 손에 닿을지 모른다. 그때 그것이 이름 없이 떠돌지 않기를 바란다면, 오늘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이름을 지켜 주어야 한다.

저작권은 금지의 언어가 아니다. 그것은 기억의 언어다. 사라진 이름의 자리에 다시 이름을 놓아 주는 일이다. 그리고 그렇게 이름을 불러 주는 사회에서, 창작자의 시간은 비로소 혼자가 아니게 된다.